



## 기획특집

Special Rep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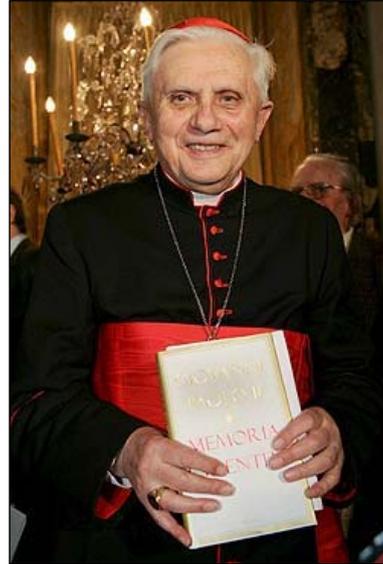
# 21세기 라틴아메리카 가톨릭교회의 당면 문제

조영현

지난 세기 가톨릭교회는 제2차 바티칸공의회를 통해 패쇄적이고 수동적이던 자신의 이미지를 벗고 세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자세를 취했다. 이 공의회는 교회의 현대화를 선언하는 일대 사건이며 가톨릭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더 이상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채 정신적 영역만 담당하는 기구가 되길 거부한 것이다. 이런 메시지에 부응하여 적극적으로 세상과 대화를 시도한 라틴아메리카 교회는 변화하는 가톨릭교회의 한 모델이 되었다. 1968년 콜롬비아 메데인(Medellín)에서 열린 제2차 라틴아메리카 주교회의를 계기로 진보적인 성직자, 신학자, 평신도가 주축이 되어 해방신학, 기초공동체 등 라틴아메리카의 특색을 지닌 신학과 교회의 모델을 탄생시켰다. 신도들의 사회참여 운동들도 확산되었고, 교회는 더욱 역동적인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동시에 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문제와 혼란을 야기했다.

1959년 쿠바혁명 이후 확산되던 게릴라운동, 토지문제에서 파생된 농민운동, 불의한 체제를 변화시키고자 한 학생운동, 군사쿠데타, 그 후 계속되던 경제와 정치위기는 가톨릭 신도들에게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발시켰다. 군사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인권유린, 사회 불의, 빈부

격차, 부패, 가난의 문제와 중심국들에 의한 경제적 종속 문제에 대해 교회가 적극적으로 발언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교회 내 진보와 보수간 갈등이 첨예화되고, 이것들이 정치과정과 맞물려 돌아가면서 가톨릭교회가 철칙처럼 여기던 교회 내 일치와 통일성이 흔들리는 것이 아닌지 불안해했다. 특히 교회의 최고지도자인 교황과 교황청 인사, 라틴아메리카 보수 주교들이 이런 변화를 부정적으로 보았다.



라칭거 추기경

1979년 멕시코 푸에블라(Puebla)에서 열린 제3차 라틴아메리카주교회의는 이런 대립과 갈등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이후 교황청 신앙교리성 장관 라칭거(Joseph Ratzinger) 추기경은 라틴아메리카 보수 주교들이 주축이 되어 일으킨 반 해방신학 캠페인에 가세했다. 교황청은 조직적으로 해방신학자들을 견제하고 탄압하기 시작했다. 브라질의 레오나르도 보프(Leonardo Boff)와 페루의 구스타보 구티에레스(Gustavo Gutiérrez)의 신학이 교황청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해방신학자들이 주장한 ‘민중교회’ 개념과 그리스도론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마르크스주의 분석방법의 사용과 ‘대응폭력’ 문제에 신앙교리성은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해방신학자들이 반자본주의적이며 친사회주의적인 성향을 보이는 것도 교황청은 달갑지 않게 여겼다. 이 후 해방신학자들의 활동은 많이 위축되었고, 진보적 신학교는 폐쇄되었다. 교황은 진보 주교들이 은퇴하면 보수 주교들을 임명하는 전략을 통해 교회는 빠르게 보수화되었다. 이제 교회는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를 급진적 사회개혁이나 체제 변혁보다는 전통적인 자선이나 원조라는 방식으로 해결하려 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동구권의 몰락은 진보세력의 위축을 가

져왔다. 사회변혁의 열망을 담은 진보적 그리스도교 운동과 해방신학이 약화된 후 라틴아메리카 가톨릭교회에는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부정적 결과는 2000년대 라틴아메리카 정치 지형을 분홍빛으로 물들였다. 멕시코나 콜롬비아를 비롯한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를 좌파가 장악한 것이다.

가톨릭교회가 내부의 문제로 고민과 혼란에 빠져있던 30년 동안 라틴아메리카 종교지형은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많은 새로운 종교가 유입되고 개신교 신도도 빠르게 증가했다. 각계각층의 가톨릭 신도가 교회를 떠나 새로운 종교나 오순절교로 개종했다. 여기에 2010년 이후 계속해서 발생하는 가톨릭 성직자의 성추문이나 동성애 스캔들은 가톨릭의 토대인 도덕성의 추락을 불렀다. 이것은 곧 교회 지도부나 성직자들에 대한 불신 뿐 아니라 교회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렸다. 해방신학자 호세 콤블랭(José Comblin) 신부는 추락하는 가톨릭의 도덕성, 종교 다원주의의 확산, 좌파정권과의 갈등 문제 등이 21세기 초반 라틴아메리카 가톨릭교회가 풀어야 할 난제들이라고 지적했다.

### 도덕성의 추락

최근 라티노바로메트로(Latinobarómetro)가 밝힌 통계에 의하면, 라틴아메리카 주민들 중 18%만이 정치가를, 28%만이 국회의원들을, 38%만이 민간부분을, 42%만이 군을, 43%만이 대통령을 신뢰한다.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이 지역에서 가장 신뢰받는 제도이자 단체이다. 약 71%(베네수엘라의 경우 74%)정도의 주민들의 교회를 신뢰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에 발생한 여러 스캔들은 바로 이 신뢰를 갉아먹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파라과이의 페르난도 루고는 지난 2008년 보수 우파인 콜로라도당의 61년 장기집권을 종식시키며 대통령에 당선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해방신학 노선의 주교로서 좌파정당들 뿐 아니라 시민사회 단체의 지지와 변화를 바라는 빈곤층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러던 그가 2009년 4월부터 대통령의 자녀들을 낳았다고 주장하던 여성들로 인해 추문에 휩싸였다. 주교직을 수행하던 중



파라과이 페르난도 루고 대통령

알게 된 16세의 비비아나 카리요라는 여인은 자신의 아들이 루고 대통령의 친자라고 주장했다. 파라과이 최고 통치권자 루고는 카리요의 아이가 자신의 아들임을 인정하고 불완전한 인간으로 범한 잘못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했다. 그러나 추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욱 확대되었다. 두 명의 여인이 더 나타나 같은 주장을 했다. 상대적으로 깨끗한 이미지로 부패척결과 빈곤퇴치에 대한 기대감을 주면서 정치무대에 들어선 루고는 자신의 이미지에 먹칠을 했고, 더 나아가 자신이 주교로 몸담았던 가톨릭교회에도 도덕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2010년 북미와 유럽을 강타한 가톨릭교회 성직자들의 성추문과 동성애 스캔들이 라틴아메리카에서도 발생했다. 아르헨티나의 홀리오 세사르 그라시 신부가 자신이 설립했던 어린이 보호시설에서 아동성추행을 했다는 이유로 15년형을 선고 받았다. 에드가르도 스토르니 신부도 같은 혐의로 8년형에 처해졌다. 칠레와 콜롬비아에서도 소아성애(小兒性愛) 스캔들로 사제들이 법정에 섰다. 단일 국가로는 세계 최대 가톨릭 신도 수를 자랑하는 브라질에서는 82세의 루이스 마르케스 바르보사 신부가 사제관에서 한 청년과 성관계를 갖는 장면이 그대로 뉴스에 보도되면서 스캔들에 휩싸였다.



그리스도의 군단(Legionario de Cristo)

2010년 브라질에 이어 두 번째로 가장 많은 신도 수를 보유한 멕시코에서도 존경받던 한 성직자의 스캔들이 터졌다. 막강한 자금을 가진 ‘그리스도의 군단’(Legionario de Cristo)을 설립한 마르시알 마시엘 신부가 추문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는 죽을 때까지 이 단체의 총장으로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며 전권을 휘둘렀다. 풍부한 자금력으로 교황청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이 단체는 ‘그리스도의 백만장자들’이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그러나 마시엘 신부와 이 단체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

마시엘 신부가 2008년 87세의 나이로 사망하자 새로 임명된 총장은 외부의 압력에 못 이겨 자신의 선임자가 두 명의 여인으로부터 3명의 자녀를 두고 이중생활을 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보다 더욱 신도에게 충격을 준 것은 마시엘 신부가 자신의 아들을 성추행했다는 사실이었다. 이 사실이 밝혀진 후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멕시코의 노베르토 리베라 추기경도 공범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문제는 한 두 성직자의 도덕적 타락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광

범위하게 벌어진다는 점이다. 이전에도 멕시코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했지만 신부들이 공개적인 법적 절차를 받아 처벌받은 적은 없었다. 교회의 지도자들인 주교들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했다.

2010년 4월 라틴아메리카의 각국 주교단은 성추문과 관련해 ‘관용 제로’ 정책을 발표했다. 더 이상 관련 사제들을 용서하거나 보호하지 않겠다는 선언이었다. 국민들에게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면 성직자를 사법당국과 교회에 고발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자칭 도덕과 가치의 수호자라고 자처하는 가톨릭교회는 이미 심각한 도덕적 손상을 입은 후였다. 중세 가톨릭이 종교개혁이란 철퇴를 맞은 것은 외부의 도전 때문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와 타락, 도덕성의 상실 때문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라틴아메리카 교회는 내부로부터 흔들리고 있는지도 모른다.

### 좌파정권과의 대립과 충돌

198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 가톨릭교회는 전체적으로 보수화되었다. 그러나 현재 이 대륙은 진보적 색깔을 띠는 좌파정권 일색이다. 대통령이 온건좌파냐 급진좌파냐에 따라 교회와 관계가 다른 양상을 보인다. 주로 급진좌파의 양상을 보이는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에서 가톨릭교회와 정권간의 갈등과 대립이 심화되었다.

전통적으로 서구문화에서 성장한 가톨릭교회는 자본주의 체제에 더 친화적인 모습을 보인 반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 대해서는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해방신학이 약화된 후 라틴아메리카 교회는 더욱 우경화되었다. 따라서 우고 차베스가 실현하고자 하는 ‘21세기 사회주의’에 대해 배타적이고 적대적이다. 대부분의 베네수엘라 주교는 우고 차베스가 권력 독점과 영구집권을 통해 베네수엘라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 것이며, 결

국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회의 상층부를 형성하는 주교들과 주요 성직자들은 야당, 사설 언론과 방송매체, 반정부 학생운동권, 기업인들과 연대해서 차베스에 대항했다. 차베스도 자신의 개혁프로그램에 반대하는 가톨릭주교들을 ‘혁명의 암적 존재’로 지칭하고, 카라카스의 우로사 추기경과 보수적인 주교들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모욕을 주었다. 양측의 관계 악화는 교황청과의 관계 악화로까지 이어졌다.

최근의 대립은 차베스정권이 급격한 교육개혁을 추진하면서 다시 촉발되었다. 2009년 차베스정권은 새 교육법을 공표하면서 기존의 ‘교육 사업’이나 ‘제국의 신하를 양성하는 교육’과는 단절하는 대신 국가주도 무상교육, 민중교육, 종교의 색채를 배제한 교육을 새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것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지도적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교육자로서 국가’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려고 한 것이다. 동시에 교육을 통해 자신이 주장하는 ‘21세기 사회주의’ 이념과 윤리를 학생들에게 이식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했다.

가톨릭 주교들은 교육을 특정이념을 주입하는 도구로 삼지 말 것과 자녀들에게 종교 교육을 원하는 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박탈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우로사 추기경은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원천적으로 막는 것은 학교에서 하느님을 추방하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교육 분야는 헌금이나 기부와 더불어 교회 수입의 한 중요한 원천이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국가와 함께 교육 분야를 양분해 왔다. 교육 분야는 두 기관의 이해가 중첩하는 영역이었다. 동시에 교회에게 교육 분야는 경제적 이권뿐 아니라 국민들에게 도덕과 윤리를 형성시키는 공간이자, 신자들을 확보하고, 신자를 재교육하는 장이기 때문에 결코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영역에서 교회의 소외는 사실상 사회적 영향력 감소를 의미한다.

가톨릭교회는 볼리비아와 에콰도르에서도 유사한 문제로 좌파정권과 충돌했다. 2009년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은 자신의 개혁정책에 반대하는

야당에 동조하는 가톨릭교회의 지도부를 향해 “유럽식민주의의 살아있는 상징”이라고 비난했다. 이런 가톨릭교회는 볼리비아에서 사라져야 하며, 기존에 교회가 누려온 모든 특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보 모랄레스는 교회가 자신의 교육정책에 반대해 학부모협회와 사립학교협회를 사주한다며 비난했다. 교회가 야당과 함께 정권 타도 운동을 배후에서 조종한다고 본 것이다. 모랄레스는 볼리비아 주교회의 의장인 훌리오 테라스스 추기경에게 기도와 정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압박했다. 모랄레스는 사사건건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가톨릭교회를 야당보다 더 위험하게 생각했다.

모랄레스는 2009년 브라질 세계사회포럼에서 볼리비아 개혁의 주적이 가톨릭교회라고 천명했다. 동시에 “또 다른 세상이 가능한 것처럼, 또 다른 신앙, 다른 종교와 교회도 가능할 것이다”라며 기존 보수적 가톨릭을 대체할 새로운 교회 설립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2009년 새 헌법이 공포된 후 전통적으로 누려온 가톨릭교회의 특권을 박탈하기 위해 교황청과 맺은 국제 협정들을 점검하기 시작했다. 에보 모랄레스는 추기경 등 교회의 고위 성직자가 누리는 면책특권을 없애고, 주교들이 소지할 수 있었던 외교관 여권을 회수하는 절차를 밟으라고 외교부에 지시했다.

에콰도르의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도 2009년 3월 제헌의회 구성을 위해 국회를 무력화하고, 4월에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제헌의회 구성을 추진했다. 차베스나 모랄레스의 정치 개혁을 모방한 것이다. 코레아는 자신이 제출한 개헌안을 반대하도록 주교들이 신도를 종용했다며 교회를 비난했다. 코레아식 정치 개혁에 반대하는 주교들은 헌법의 일부 조항이 지나치게 국가주의적이며 비윤리적이라고 평가했다. 주교들은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과, 동성애자 사이의 결혼이나 낙태 허용 정책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러자 코레아는 헌법이 종교의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데 설교대가 보수주의 성직자들의 정치 구호를 외치는 장소로 이용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가톨릭교회의 보수 성직자들이 시

민혁명의 적이라고 선언했다.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대표적인 세 명의 좌파 대통령은 모두 가톨릭 주교들이 정치문제에 개입하고 있다고 교회를 비난했다. 선거에 의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좌파 정권과 직접적인 대립과 갈등은 가톨릭교회의 입지를 약화시키고 있다.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민중이 지지하는 개혁에 반대해 기존의 기득권 보수층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켜주는 모습은 교회 내 가난한 사람들의 이탈을 촉진했을 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진보와 보수 간 갈등을 조장했다. 가톨릭교회와 갈등을 빚는 좌파정권들은 가톨릭 선교와 사목활동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며, 재정이나 행정적 지원을 줄이고 있다. 더 나아가 좌파정권들은 자신들의 정책이나 입장을 지원하는 다른 종교나 정치에 무관심한 개신교를 지원하면서 가톨릭을 위협하고 있다.

### 개방된 종교 시장

한때 라틴아메리카는 ‘가톨릭 대륙’이란 말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하지만 오늘날 이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 최근의 통계가 이를 잘 보여준다. 2004년 라틴바로미터가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라틴아메리카에서 자신이 가톨릭 신자라고 밝힌 사람의 비율이 71.9%였다. 가장 높은 가톨릭 신도 비율을 보이는 나라는 85.8%로 베네수엘라였다. 에콰도르(85.5%), 파라과이(84.6%), 콜롬비아(82.8%), 아르헨티나(82.4%), 파나마(80.6%)가 뒤를 따랐다. 이들 나라는 자신이 가톨릭 신도라고 인구센서스에서 밝힌 사람들이 80%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군에 속했다. 가장 낮은 가톨릭 신도 비율을 보인 나라는 52.9%로 우루과이였으며, 그 뒤를 엘살바도르(53.5%), 온두라스(55.1%), 과테말라(58.6%)가 따랐다. 아무런 종교도 믿지 않는다는 사람도 10.4%의 비율을 나타냈다. 개신교(오순절교



오순절교의 상징 벽화

포함)의 비율은 14.9%로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 개신교의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온두라스(32.0%)이고, 그 뒤를 이어 과테말라(31.8%), 엘살바도르(29.0%), 니카라과(25.9%), 코스타리카(20.7%), 브라질(19.0%)이 따랐다. 주로 중미 국가에서 개신교의 비율이 높았으며, 그 외의 다른 종교를 믿는다는 사람도 2.8%를 차지했다.

가톨릭의 종교시장 점유율이 점차 떨어지는 반면 개신교의 증가율은 눈부시다. 특징적인 것은 증가 중인 개신교 신도 가운데 70%는 오순절교를 신봉한다는 점이다. 오순절교는 하느님을 믿는 자들은 건강과 부, 축복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신앙고백, 십일조, 헌금 등을 통해 이 같은 축

복이 성취된다는 가르침을 내포한 ‘번영의 신학’으로 무장되어 있다. 기복적이며 단순명료한 설교 메시지는 빈민층과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쉽게 받아들인다. 아만도 로블레스(Armando Robles)는 가톨릭은 제도를 강조하고 장중하지만 고리타분한데 비해, 오순절교는 융통성이 있고 근대적이며, 활력적이라고 분석했다. 그리고 오순절교가 개인주의적이고 실존적이라 위계적이고 교의적인 측면이 강한 가톨릭보다 세속화된 문화에 더 잘 부응한다고 주장했다.

오순절교는 가톨릭이 방치한 가난한 사람들에게 파고들며, 이들에게 정신적 위안과 동시에 물질적 필요를 더 잘 충족시켜 준다. 가톨릭교회는 가난과 비참, 소외와 불의 속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에 무관심했고, 그들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데 역부족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 원주민, 도시빈민 등 빈곤계층의 상당수가 오순절교로 개종했다.

세속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신앙의 문제는 더욱더 개인의 선택 문제가 되었다. 라틴아메리카의 모든 나라의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현세적이고 개인주의적인 성향의 종교가 확산되었다. 게다가 집단적이거나 공동체적인 것, 혹은 수직적이거나 위계적인 것들을 멀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새로운 문화적 움직임 속에서 원주민이나 흑인 문화에 뿌리를 둔 혼합종교적 특색을 보이는 정령숭배 신앙들이 급속히 확산되었고, 중상류층에는 인도와 동양에서 기원한 종교들이 유행했다. 새롭게 유입된 뉴에이지 운동뿐 아니라 이질적이라고 여겨지던 이슬람교도 새롭게 라틴아메리카 종교시장에 뿌리내렸다. 앞에서 언급한 오순절교의 확산은 결정적으로 가톨릭의 패권을 위협하면서 이 대륙에서 가톨릭의 종교 시장 독점을 무너트렸다. 이제 라틴아메리카 종교시장은 가톨릭 독점 시장에서 벗어나 모든 종교가 경쟁하는 종교백화점이 되었다.

## 위기 극복을 위한 가톨릭의 대응: '새 복음화'

종교를 시장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라틴아메리카에 나와 있는 종교 상품의 목록은 다양하다. 이런 변화 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라틴아메리카 주민들 사이에 기존 신앙이나 믿음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 다양한 종교 구매 욕구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요구는 점차 증가일로에 있다. 이것이 가톨릭의 독점적 지위를 무너트리면서 라틴아메리카의 종교 체계모니 지형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단순히 신자 증가율에서만 보자면 오순절교가 제시한 종교 상품이 가톨릭이 제시한 것보다 훨씬 더 매력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일부 종교 전문가들은 '가톨릭 카리스마 개혁'(CCR)과 같은 성령중심주의 운동들이 라틴아메리카에서 가톨릭의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평신도 중심의 성령체험을 강조하는 이런 움직임은 교회 내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이 운동은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기초공동체(CEB)와 달리 개인적 구원이나 개인적 영성을 강조하고 하느님과 직접적인 만남을 강조한다. 또한 적극적인 활동, 성서 중심의 신앙, 교회에 대한 순종을 강조한다. 체험하는 신앙, 치유와 은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더 역동적이다. 성직자의 권위를 존중하고, 교회의 제도적 측면을 약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교회 교도권과 충돌하지도 않는다. 이런 면에서 보면 '가톨릭 카리스마 개혁'은 오순절교의 일부 장점들을 수용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가톨릭 내부에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움직임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신학자들이나 평신도 뿐 아니라 보수적인 성향을 보이는 교회의 인사들도 이런 신앙운동에 부정적이다.

전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라틴아메리카 가톨릭교회의 위기를 보면서 '재 복음화'가 아니라 '새 복음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현 교황 베네딕토 16세도 그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고 발전시켰다. 현 교황은 라틴

아메리카의 종교 다원화 현상을 분석한 후, 이 지역 주민들이 ‘하느님과 종교에 대한 갈증’이 심하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차 라틴아메리카 주교회의에서 가톨릭이 더 역동적이고 선교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사목자의 문제가 아니라 메시지나 그 메시지가 뿌리내리는 문화가 문제이기 때문이다.

교황이 제시한 ‘새 복음화’ 전략은 추상적이며 선언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전의 방법론과 이야기를 반복할 뿐 새로운 것이 없고 구체적인 전략이 부재하다. 구조적 문제에서 파생하는 가난, 비참, 불의에 대해서도 교회는 전통적 대응 방식 말고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약간의 구호활동과 자선, 인권 존중에 대한 선언의 반복 정도이다. 교회 내적으로는 성서 읽기와 교리교육의 강화, 전례 갱신과 라틴아메리카 현실에 맞는 토착화 작업, 이념이나 정치 문제에서 초연한 자세 유지, 창조적이고 역동적인 본당사목 활동, 종교간 대화나 교회일치를 위한 노력, 영성과 평신도 역할 강화, 교회의 사회교리의 확산, 신도들의 이탈 방지 정도가 대안이라고 제시한 것이다. 이런 제안은 이미 몇 십 년 전부터 이야기되던 것들이다.

호세 콤폰렐랑같은 진보적 신학자는 로마 교황청을 비롯한 교계가 망상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비판한다. 교회는 점차 더 완고해지고 세계와 멀어져 가고 있으며, 성직자들은 더 관료화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21세기를 맞는 라틴아메리카 가톨릭교회는 아직 출구 없는 미로를 헤매고 있다.

---

조영현 — 서울대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